

2평 휴게실조차 미비...실 곳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광주지역 현장 변화는?

전남대 공과대 미화원 휴게실, 소방·방송설비 열기와 전자파에 노출
광주고용청 100곳 중 4곳 만 점검하고 "적법 설치" 결론 등 관리 미흡
학교 91% 규정 안 지켜...건설현장선 휴게실이라 적고 회의실 사용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산업현장 휴게시설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점검을 해야 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차례 전국 동시 점검에 나섰을 뿐 그마저도 전수 조사조차 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현장,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환경미화원, 건물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닥면적은 6㎡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창문을 통한 환기시설, 식수 설비도 갖춰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의 대학교와 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노동청도 이 기간동안 관할 지역 내 13곳의 대학교를 점검한 결과 모든 휴게시설은 설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돌아본 산업현장의 휴게시설은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2일 오전 전남대 한 건물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휴식시간을 맞아 휴게시설을 찾아갔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다.

휴게시설 벽면에는 출입 보안 설비 26개가 붙어 있고, 안쪽에는 각종 소방시설과 방송장비들이 설치돼 수시로 소방 관계자와 기계설 관리자가 휴게실을 출입하다보니 누워서 허리조차 펴 수 없는 형편이었다. '휴게실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 휴식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휴게실이 계단 밑에 위치해,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울려 귀가 먹먹하다는 것이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장비가 뿜어내는 열기와 전자파로 쉴 수 없어 휴게실을 좁은 곳이라도 좋으니 옮겨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른 대학도 점검해야 된다'며 전남대에 있는 휴게시설 4곳을 점검하고 나갔다"며 "법상 문제가 없지만, 노동자를 위해 다른 곳에 휴게시설을 옮기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내부에 100여개에 달하는 휴게시설이 있는데 감독관은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4곳의 휴게시설만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결국 4%의 휴게시설만 둘러보고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목소리다.

민중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에서 청소미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학교에서 휴게시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청소원을 위한 휴게시설은 냉난방 및 환기가 전혀 되지 않거나, 노인교통봉사차 등 다른



전남대 청소원 A씨가 21일 소방·경비 시설이 설치된 휴게실에 앉아 있다.

조직원과 함께 사용하라고 하거나,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지 않는 등 규정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차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몇년 전만해도 휴게시설이 없어 자동차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거나 쉬곤 했다"며 "지금은 휴게시설이 생겼지만, 그마저도 회의시간에는 나가라고 하는 등 여전히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건설현장에서도 휴게시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시 서구 상동동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적힌 컨테이너가 있었지만, 내부는 실질적으로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구 봉선동의 또다른 건설현장에서는 추운 겨울이지만 난방시설이 없어, 노동자들이 바깥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도 좁은데다 휴게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중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소면적 6㎡만 맞추면 된다는 규정 탓에 인원이 몇명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구색맞추기 식으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기준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 13곳에 이어 올해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관련 법률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청보호 전주 입건 수사 어선법 위반 등 3개 혐의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를 낸 '청보호' 선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목포해경은 청보호 선주 A(60대)씨를 어선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청보호 내에 통발 거치대를 무단으로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 증·개축한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복 사고로 승선원 12명을 사상·실종케 해 선박전복죄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선장·기관사 또한 전복 사고에 책임이 있으나, 이들은 각각 실종·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처리됐다.

해경은 통발 거치대 등 추가 설치물이 사고에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선체를 정밀 감식해 침수·전복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동 참사' 불법 감리 선정 광주 동구청 공무원 벌금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적으로 감리자를 선정한 광주 동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양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2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감리자 선정 당시 무작위로 선정해야 함에도 전·현직 상사들의 부탁을 받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B(61)씨를 부당하게 선정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과태료 액수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B씨는 해체계획서조차 검토하지 않고 감리업체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합장 선거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전남경찰청,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남경찰청이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일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6건에 43명을 수사해 5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21건(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8명, 허위사실 유포 6명, 사전 선거운동 3명, 기타 6명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며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경찰청과 21개 산하 경찰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한다.

수사상황실을 통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술 횟수 부풀린 치과의사·환자 더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154명 불구속 입건

광주지역 치과 8곳에서 십수년동안 의료진들이 환자와 짜고 수술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의사 1명과 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료기록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자들은 이를 이용 4곳의 보험사에게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료기록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수술기록을 꾸며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명기된 수술 횟수에 따라 환자별로 50만~200만원 씩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다만 범행 중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은 없었으며, 입소문을 통해 환자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h4>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h4> <p>본 회사는 2023년 2월 2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1,200,000,000원 중 금 240,000,000원을 감소하고 자본금 96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 주식 총수 120,000주 중 24,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삭감하여 총 발행주식 120,000주를 96,000주로 감소하는 결의하였습니다.</p> <p>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발효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2월 3일 대현종합건설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25, 6층 (지평동, 제후빌딩) 대표이사 방의철</p>	<h4>분할합병공고</h4> <p>(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금강과원텍(이하 "갑")과 주식회사동안텍(이하 "을")은 2023년 2월 22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금을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2월 23일 "갑" 주식회사 금강과원텍 광주광역시 서구 사암로27번길 22-13 (신촌동) 대표이사 김성훈 "을" 주식회사동안텍 경기도 안성시 영봉로 71, 2층(도기동) 대표이사 홍성필</p>	<h4>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카이에너지그룹 주식회사 2. 사업명칭: 카이에너지발전사업 3. 발전소 위치: 대안면 일원(영산리/영암리, 용지면 용산리/유산리, 회천면 영천리) 4. 발전사업설비용량: 89MW 5. 사업개시예정일: 2028년 6월 6. 사업운영기간: 준공 후 20년 7. 의견제출기간: 2023. 02. 23. ~ 2023. 03. 09. 8. 연락처: 062-673-7729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2월 23일 카이에너지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재겸</p>
<h4>합병 및 주권제출공고</h4> <p>주식회사 모아미래도(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광영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3년 02월 08일 개최된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하는 합병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p> <p>2023년 2월 23일 "갑" 주식회사 모아미래도 200111-0154199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서경오 "을" 주식회사 광영건설 200111-0461180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대표이사 박현석</p>	<h4>합병 및 주권제출공고</h4> <p>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광영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3년 02월 08일 개최된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하는 합병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p> <p>2023년 2월 23일 "갑"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2056911-0005185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박현석 "을" 주식회사 광영건설 200111-0436919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서경오</p>	<h4>합병 및 주권제출공고</h4> <p>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광영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3년 02월 08일 개최된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하는 합병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p> <p>2023년 2월 23일 "갑"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2056911-0005185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박현석 "을" 주식회사 광영건설 200111-0436919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대표이사 서경오</p>

光州日報

부구	• 동 광 266-1920 • 문 총 266-1960 • 북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658
동구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용 북 225-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송 정 222-8171
남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9054 • 송 정 222-8171
서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원 671-7276
광안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운 천 376-7153 • 지 평 376-6511
광진	• 동 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진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지국안내